



2012년 12월

## 취업 비자

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.

-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이 된 **비자신청서 2부**
- 유효한 **여권** (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)
-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배경의 **여권사진 2매** (3,5 x 4,5 cm)
-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의 경우, 유효한 **외국인등록증**
- 독일 고용인측의 고용계약서 사본 2부 (업무종류, 업무내용, 업무시간, 봉급, 사회보험, 계약기간 등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 포함)
- 학력/경력 증명서 (대학졸업, 연수, 경력 등)
- 이력서
- 독일 고용인측의 초청장 원본 (회사 주소 및 담당자 기재)

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주의사항 :

일반적으로 수속기간은 약 8-12주 소요된다. 이를 참고하여 서류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.

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, 신청 시 이를 **원화(현금)**로 지불해야 한다.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.

비자 발급은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청, 독일연방노동청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.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, 대사관은 3개월 비자를 발급해주며, 체류허가 연장은 독일 외국인청에서 이루어진다.

**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는다!**